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앨고마대학교	기간	2019.01.15.~2019.02.05.(21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된 알고마대학교는 토론토에서도 약 1시간30분을 더 비행기로 이동해야 하는 수세인트마리라는 곳입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도 37명정도 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경비행기이고, 공항도 무지 작았기 때문에 한 눈에 봐도 시골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건물이 5~6개정도 있던 것 같고, 그 중에서 우리가 수업하는 건물은 2개입니다. 건물은 얼마 없지만 건물들이 띄엄띄엄 떨어져서 위치해있어 학교 전체 크기는 체감상 후문에서 향설1관 정도의 거리입니다. 알고마대학은 캐나다학생들도 많지만 중국인이나 일본인도 많고 특히 인도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인친구들과 일본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홈메이트, 수업보조 등)입니다. 애들이 착하기도하고, 수세인트마리가 워낙 놀거리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집에 초대하거나 스케이트나 스키타면서 친해집니다.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하십니다. 선생님 중 한분은 한국에서 3년정도 살다가 오신 분이어서 전반적인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한국말도 조금 아십니다. 전체적으로 적응하기 쉬운 분위기이고, 한국에서는 겪어볼 수 없는 친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업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고, 한 수업당 한시간 반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캐나다의 역사, 문법, 토론, 발표, 봉사 등 아주 다양했습니다. 첫날 오티가 끝나고 바로 분반을 위한 시험을 진행하였고 6명, 9명 이렇게 반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명이 반을 옮겨서 7명, 8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뒤쳐진다면, 수준이 안맞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친절하시고, 캐나다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과제는 가끔 한 두장정도 내주시거나, 다음 수업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오라는 것 정도만 내주셨고, 어렵거나 힘든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봉사의 경우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센터로 옮겨가서 진행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했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버스를 탔는데 버스 간격이 1시간정도 되기에 다시 되돌아오는 데에 어려움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5번씩이나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중으로 갈수록 친구들이 지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요양병원, 유치원, 초등학교, 빈민센터 등을 다니며 쉽사리 접할 수 없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은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ctivity	Activity의 경우 스케이트, 알파카목장, 개썰매, 스키, 하키경기관람, snowshoeing & sleigh ride 등이 있었는데 snowshoeing & sleigh ride의 경우 슬라이드가 부서졌다는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스키의 경우 일주일 미뤄진 정도입니다. 선생님과 한국인 학생들, 그리고 몇몇의 캐나다학생들 등 일행이 많다보니 전체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준비물의 경우 스키팬츠, 부츠, 스키장갑(필수), 귀까지 덮을 수 있는 털모자 등이고 Activity가 있기 전날에 다들 공지를 해주십니다. 영하 30도에 달하는 맹추위이기 때문에 보온용품이 제일 중요하고 필수적인 준비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비용의 경우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이여봤자 개썰매타는 곳이 메이플시립을 직접 만드는 곳인데 그 곳에서 산 기념품 메이플시립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료로 핫초코, 마쉬멜로우, 팝콘 등을 제공해주셨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정말 미치도록 춥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최고로 추울 때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갔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머리카락에 있는지도 몰랐던 물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콧물이 얼어서 어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인데 그게 영하 15도쯤되는 날씨입니다. 그냥 캐나다에 있는 내내 극한의 추위를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용품은 진짜 꼭 필수로 챙겨오세요!
안전	위에서도 말했듯이 정말 시골동네이기 때문에 안전의 경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저같은 경우 두 번씩이나 버스를 잘못 탔었는데 한번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 30분정도 걸어갔고, 한번은 버스기사님이 운행이 끝난 다른 버스 기사에게 연락을 취해서 저를 집 앞까지 직접 데려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한분도 빼놓지않고 다들 너무 친절하십니다. 아마 안전문제는 걱정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대신 데이터 상태가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구글맵스에서 수세인트마리지역의 지도를 다운을 꼭 받으셔야합니다. 안 그러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V) 외부 숙소() 기타() 저는 캐나다에 있던 3주동안 제일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홈스테이입니다. 제 방은 반지하였는데 한 층을 아예 저 혼자 썼기 때문에 방에 대해서는 불편한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홈스테이 가족들의 경우 엄마와 딸,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살았고 다들 너무 유쾌하셔서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규칙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두 분 다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샤워를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다른데서 놀고 오더라도 10시반 안에는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무 늦으면 걱정하시기도 하고, 아침에 출근하시는 데 폐를 끼칠까봐서

	입니다. 저희 홈스테이 엄마는 정말 친절한 분이어서 미국도 2번이나 데려가 주셨고, 도시락도 밥이랑 샌드위치, 피자 등의 양식을 번갈아서 싸주셨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1층 거실에서 다같이 앉아서 티비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하거나, 도리토스와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거나, 와인을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의 저희 가족들보다 더 가족같이 지냈습니다.ㅎㅎ 캐나다를 떠날 때 제일 슬펐던 점이 홈스테이 가족들과 이별한다는 점이 제일 슬펐을 정도로 정도 많이 들고 진짜 실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V) 외부식당 () 기타() 아침의 경우 거의 맨날 토스트와 커피를 먹었는데 저는 준비를 다하고 조금 더 누워있고 싶어서 가끔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언제나 도시락을 싸주셨고, 저녁은 친구들이랑 밖에서 사먹을 때도 있었고 집에서 차려주시는 밥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가족들이랑 외식도 2번정도 했습니다. 음식은 전체적으로 간이 썸 편이었습니다. 짜거나 달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사먹으면 소금이랑 후추같은 것을 따로 주시고, 간을 좀 약하게 해주셔서 밖에서 사먹을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사먹을 경우 팀문화가 발전되어 있어서 팁을 주어야했기 때문에 그건 좀 낯설었습니다.
교통	위에서 말했듯이 저희 홈스테이 엄마는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제가 갔을 때 유독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제가 추운 데에서 버스기다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매일 아침 저를 데려다주셨습니다. 홈스테이 엄마가 다른 일로 저를 못데려다주시는 날이 있으면 홈스테이 딸이 저를 데려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정말 걱정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서는 친구들이랑 같은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나가 각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곳은 버스 간격이 일정시간대에만 30분이고 대부분 1시간이기 때문에 버스를 한번 놓치면 한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맵스로 버스시간을 잘 파악하고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비의 경우 첫날에 버스패스를 주는데 그것만 있으면 하루에 몇 번씩, 몇 시간을 타도 무료입니다. 대신 잃어버리면 재구매를 해야하는데 66캐불이니까 안 잃어버리게 조심하셔야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항공료	1,715,100	O
보험	25,610	O
비자	7캐불	O
생활비(많이 쓴 편)	250캐불	X
쇼핑(엄청 많이 쓴 편)	750캐불	X
합계	약 2,60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햇팩, 장갑, 부츠, 히트텍 등 기본적인 보온용품들은 꼭 챙겨가세요. 스키팬츠의 경우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말하면 빌려주십니다. 털모자의 경우도 저희는 첫날 학교에서 한번, 하키경기 관람하는 날 하키장에서 한번 무료로 주셨습니다. 노트북의 경우 굳이 안챙겨가도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태블릿을 가져왔는데 밤에 영화볼 때 외에는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드문 경우인데, 저는 미리 1000캐불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에서 수령을 했습니다. 근데 은행직원분이 잘못하셔서 캐나다지폐가 아닌 비슷하게 생긴 뉴질랜드지폐를 주셨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비행기가 연착되어 그 전에 은행 직원 분께서 연락을 취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말 큰일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하시고 지폐가 캐나다지폐가 맞는지 한번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경우 저는 걱정하고 쇼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이 한 편입니다. 음식도 자주 사먹었구요. 쇼핑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사먹으면 500캐불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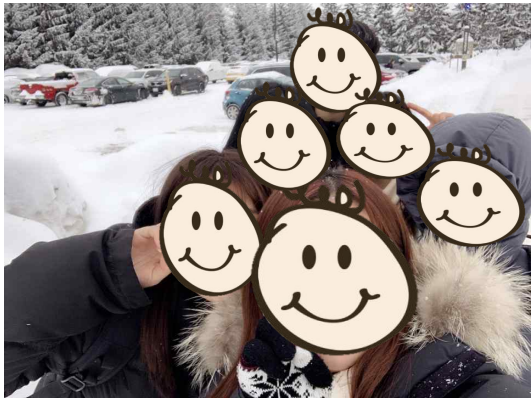
사실 저는 1지망에 랑가라를 쓰고, 2지망에 알고마를 썼습니다. 면접을 볼 때, "기대되는 학습효과", "만약 홈스테이 가족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가시간이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냐" 등 구체적인 캐나다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알고마대학에 합격을 하였을 때, 1지망이 아니라 2지망으로 합격하여서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랑가라를 갔다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알고마에서 생활을 하고보니 오히려 알고마대학을 붙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과도 가까워서 썰매타러, 쇼핑하러, 밥먹으러 미국에 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서 한국에 다시 가기 싫어질 정도로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캐나다는 나라에 많은 관심이 없었는데 호감도가 상승했고, 나중에 다시 가서 살고싶을 정도로 좋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동안 최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저녁에 꼭 30분정도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학교에서는 일본인친구들과 중국인친구들과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주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몇 일이 지나고 나니 아무리 나의 영어실력이 딸리더라도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3주밖에 안되다 보니까 많은 실력의 향상은 기대하기 힘들었지만 적어도 외국인과 대화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법은 확실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정말 좋은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수세인트마리가 시골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언제나 친절하시고, 캐나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출국 전에 '서양사람들은 동양사람들을 무시한다', '인종차별할 것이다'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캐나다에 와줘서 고맙다, 환영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4학년이 되어서 불가능하지만 만약 제가 3학년만 되었어도 교환학생을 신청해서 다시 갈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가기 전부터 하고싶은거, 사고싶은거, 먹고싶은거 모두 아쉽지 않게 다 하고 오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돈으로 약 85만원(환율이 840원=1캐불 정도)정도 환전하고, 추가로 비자카드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초적인 생활만 할 경우 400캐불정도만 환전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의 경우, 홈스테이에서 모두 해결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돈을 쓰지 않을수도 있지만, 저같은 경우 학교가 끝나면 터미널 앞에 있는 Station mall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쇼핑을 했고, 일주일에 1~2번 정도 앨고마대학에서 만난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서브웨이나 맥도날드같은 패스트푸드의 경우 10캐불 안쪽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경우 1인당 30캐불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주의 경우 한병이 7캐불정도였습니다. 점심은 매일 홈스테이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80퍼센트는 샌드위치만 싸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치나 컵라면, 컵밥같은거 가져가시는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10캐불부터는 지폐지만 그 밑으로는 동전을 사용해서 동전이 많이 생기니까 동전지갑 꼭 가져가세요~

마지막으로 에어캐나다... 우선 저희는 한국에서 토론토로, 토론토에서 수세인트마리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토론토가는 비행기는 비행기 안에서 체류했던 시간까지 합쳐서 2시간 연착되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수세인트마리가는 비행기는 아예 캔슬이 되었구요. 그래서 다음날 토론토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 9시 비행기로 수세인트마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캐리어 2개 중 하나가 토론토에서 아예 출발을 안해서 그날 밤 홈스테이맘한테서 세면도구를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다음날 화장은 아예 못했구요. 근데 같이 온 친구 중에 한명은 캐리어 두 개다 안와서 옷도 전날꺼 그대로 입고 씻는 것도 힘들게 씻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한국에 올 때도 5명이나 캐리어가 안와서 다다음날 택배로 캐리어를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물품은 규정에 맞는다면 기내용 가방에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장시간비행 정말 힘들니까 목베개 꼭 가져가세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스케이트를 타고 쉬는 모습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
	
학교 끝나고 Station mall가려고 버스 기다리는 모습	개썰매를 타고나서 셀카
	
알파카목장	일본인친구집에 놀러가서 노는 모습